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 [부제 제25876호] 주제 107 (2018)년 1월 2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새해 2018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새해 주제107(2018)년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고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상향연에는 당과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탄핵방군, 로동적위군에게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새해의 인사를 드려왔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불세출의 전설적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흥분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지도와 외 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송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년제로 보존어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70돐을 맞이하는 새해 2018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명세를 다지었다.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모셔져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한평생 주체

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당과 혁명명백전배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상을 우리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삼가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알제리 대통령이 선물을 드려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려왔다. 선물이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흥성번영과 민족단위의 복락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해주셨으며 세계각주 화위업수령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고 절세위인들의 위상을 우리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방문목에 글을 남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 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송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목에 글을 남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70돐경축

배우 위원회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70돐경축 배우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우장신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다니

배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 서기장 열메이스트 라모스 로 아르메가, 서기장들로 배우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

선문화협회 서기장 우리 카스트로 로페로가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배우의 여러 정당, 단체들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행사들을 널리 조직하며

인미네트를 통한 선전활동용 강화하여 배우인민들속에서 조선 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새해를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주제 107(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온 나라 전민군은 민족의 어버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반제민주주의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향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절세위인들의 위상을 우미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 다함없는 총정의 불꽃이 굽이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쳐갈 신념과 의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새해 주제 107(2018)년에 즈음하여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격정은 그 어디에 비할바람이 크다. 신년사의 자자구구를 새겨들며 새길수록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명적당풍을 펼쳐야 한다는 당의 명령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지니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깊이 절감하게 된다.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갈 기세가 전방에 퍼져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공화국혁명전선에서 이룩한 역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마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방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펼쳐야 한다는 당의 명령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지니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깊이 절감하게 된다.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갈 기세가 전방에 퍼져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공화국혁명전선에서 이룩한 역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마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방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펼쳐야 한다는 당의 명령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지니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깊이 절감하게 된다.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갈 기세가 전방에 퍼져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공화국혁명전선에서 이룩한 역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마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방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펼쳐야 한다는 당의 명령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지니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깊이 절감하게 된다.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올해의 총공세에서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을 힘있게 펼쳐갈 기세가 전방에 퍼져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공화국혁명전선에서 이룩한 역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

##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의 교육인들과 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며 표적이다.

우리는 과학교육의 배인 지난해에 거둔 자랑찬 성과를 토대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는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중대사인 교육사업 발전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교원양성부문을 통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끌어올려 졸업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나리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에 의해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의 교육인들과 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며 표적이다.

우리는 과학교육의 배인 지난해에 거둔 자랑찬 성과를 토대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는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중대사인 교육사업 발전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교원양성부문을 통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끌어올려 졸업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나리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에 의해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의 교육인들과 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며 표적이다.

우리는 과학교육의 배인 지난해에 거둔 자랑찬 성과를 토대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는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중대사인 교육사업 발전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교원양성부문을 통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끌어올려 졸업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나리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에 의해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의 교육인들과 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며 표적이다.

우리는 과학교육의 배인 지난해에 거둔 자랑찬 성과를 토대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는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중대사인 교육사업 발전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교원양성부문을 통해 교육수준을 높이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끌어올려 졸업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나리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에 의해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 승리의 리정표 따라 농업생산에서 대비약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량을 반드시 절명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량을 늘여야 합니다.》

천만민을 무한히 격동시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지금 우리모두의 가슴은 황금과도 물결치는 전이처럼 새겨져 있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농업부문에서 내신 과업과 수확량에 대해 하신 말씀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참으로 우리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심장이 끓어번지고 새 힘이 솟아난다. 대비약의 지름길, 승리의 리정표가 환히 나타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을 개선할수 있는데서 농업부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자!

이런 행세가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서 활화산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대비약의 열쇠로 든든히 붙여주고 주라 격진방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 것을 지난해 농업생산과업이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당의 뜻을 받들어 우리 농민들은 다수확농법을 힘있게 벌리고 과학농사실험을 일으킨 결과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를 높이 이고 매년에 보기 드문 과업적 작을 얻어냈다.

농사를 잘 지어 잘어 넘쳐나야 사회주의가 꽃피우는 인민의 웃음이 더욱 넘쳐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이 중대하고 영예

로운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 비상한 각오로 분발해나갈 때 꽃에 핀 열매, 정령 못할 오색도 없다.

우리는 당의 농업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왔다. 특히 과학농사실험을 새창에 일으키는데 보다 큰 힘을 넣었다. 농업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지리적적, 작지적의 원천에서 로획과 영농물자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이르기까지 절실한 과업들을 더욱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그러하여 알곡생산물료를 반드시 절명하고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기 위해 팔뚝을 펴고 또 뛰었다.

우리의 무전장한 힘과 기술, 자원으로 기어오르는 황금밭을 펼쳐어 저들의 제세책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농장도반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령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 당중앙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농장도반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령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농장도반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령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농장도반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령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농장도반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령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장군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로동계급 -보산제철소에서- 본사기자 김홍준 특약

**김 영 남 동 지 가**  
**팔 레 스티 나 국 가**  
**대 통 령 에 게 축 전 을 보 내 였 다**

리말라드  
 팔 레 스티 나 국 가 대 통 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카하**

나는 팔레스티나혁명가서 53권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두적인사를 보냈다.  
 나는 동부부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모든 합법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확인하면서 이 기회에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7(2018)년 1월 1일

## 빛나는 아침, 다함없는 축원

위대한 당을 따라 그리도 역세기, 그리도 보람차게 주제 106(2017)년 한해를 영웅적투쟁으로 수놓으며 달려온 사회주의조선의 태지가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은 나라 방방곡곡의 일터와 거리, 마을들이 명절일적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있다.

환희와 격정에 넘치고 행복과 겨운 사람들의 물결이 거리를 매우우며 흐른다.

어찌된 장안이 이리도 밝은가, 어찌서 사람모두가 그들듯 희망과 기쁨에 넘쳐있는가.

대륙간판도르예트 《희생-15》형 시험장사의 대성공속에 맞이한 새해이다. 보다 밝은 앞날이, 보다 큰 행복이 마음을 새해이다.

그러나 그것에만은 아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의 가슴가슴이 끓었다는 희열과 필승의 신심으로 그렇듯 뜨겁게 끓어번지는 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따뜻한 축복속에 새해 우리 인민의 생활이 시작되어있다.

그렇다.

어느새나 그리하듯 역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신에 넘친 무쌍 무쌍한 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의 령도 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어납니다.》

새해 주제107(2018)년 1월 1일 0시,

수도 평양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불보라, 환희로운 불꽃에게가 정경하게 걸렸다.

유서깊은 대동강에서 천천만화의 이채로운 화국을 펼치며 추추가 머저오르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격정과 환희가 넘쳐났다.

대동강안에 리저오른 초복심, 그것은 조국정사에 또 한줄기 자애로운 님을 새기게 될 뜻깊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여파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희망찬 새해 주제 107(2018)년의 정군에서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드림없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그렇게 희망의 새해가 이 땅우에 밝아왔다.

올해 첫날도 수도의 만수무답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찾아온 각계각층 사람들로 끓어 넘쳐있었다.

조국의 방산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인민군인들과 과학기술승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에 발돋움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친 미려한 체육인들과 돌출하는 공작과 협동전에서 날여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로동자, 농민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 만수무답이 아니었다.

새해의 첫아침부터 한없이 그리움과 흥보의 대화가 금수산 대양강과 나라의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으로 끓어올라 물결쳤다.

향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올해의 행복찬 생환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일원단결로 충성다해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수령님들에 삼가 새해인사를 드렸다.

이렇게 밝은 새해의 첫날은 정경국건설의 중요전선에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여파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희망찬 새해 주제 107(2018)년의 정군에서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드림없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그렇게 희망의 새해가 이 땅우에 밝아왔다.

올해 첫날도 수도의 만수무답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찾아온 각계각층 사람들로 끓어 넘쳐있었다.

조국의 방산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인민군인들과 과학기술승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에 발돋움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친 미려한 체육인들과 돌출하는 공작과 협동전에서 날여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로동자, 농민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 만수무답이 아니었다.

새해의 첫아침부터 한없이 그리움과 흥보의 대화가 금수산 대양강과 나라의 곳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으로 끓어올라 물결쳤다.

향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우리

새해의 첫 아침에서부터 배운이 지는 어머니당의 다정한 사랑에 천만의 심장은 더욱 뜨거워진다.

지금 수도시민들은 평양의 이튿날 식당물마다에서 평고기국수, 고기羹 반국수, 노부부고기와 함께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명절음식인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민족음식을 봉사받으며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뜨겁다. 조국의 모든 금양봉사단원에서도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가지고 명절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은 나라 도처에 마련된 문화정서 생활기지와 체육시설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을 흥시키고 있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수도의 현대적인 대중문화기지는 물론 도사세자와 시, 군들에 꾸러진 풍류와 유원지, 모스크바크레앙마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다.

그림속속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과 노력을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뜨겁게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행세가 강산을 울리는 속내 우리 인민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부를 삼가 축원합니다!

본사기자 리경일

##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활활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전두에서부터 위훈을 떨치고있다.

그들속에는 황금제련합기업소 건설대보수사업소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화국장군 일흔둘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 비상한 의지를 안고 대성공사를 앞당기 끝내기 위한 전두에 한사함없이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제적인 계획,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활강근간으로 충속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사업소종업원들도 하여금 올해의 총공적전에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속까지 새기도록 하는 한편 맡은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전두적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종업원들은 미세하고 추후세력들의 약박한 제세책들을 산산이 짓부셔버릴 의지를 안고 새해 첫 전두에서부터 드레 공작전을 벌려왔다.

그러하여 대성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운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기에 희망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힘의 기치 황혼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전두에서부터 위훈을 떨치고있다.

그들속에는 황금제련합기업소 건설대보수사업소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화국장군 일흔둘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 비상한 의지를 안고 대성공사를 앞당기 끝내기 위한 전두에 한사함없이 펼쳐나갔다.



# 학생소년들의 주제 107 (2018)년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 진행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의 주제 107(2018)년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노래》가 12월 31일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 진행되었다.

《세태를 축하합니다》 등의 글발들과 특색있는 장식물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설맞이공연장은 위대한 당의 영도마라 주제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긍지드높이 최양반 세태를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열매이고있었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행복의 요람에서 뜻깊은 설맞이공연을 하게 된 학생소년들이 궁중놀이로 펼쳐놓은 춤바다는 명절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인 양형식동지, 김영배동지, 안경수동지, 최희동지, 박대덕동지, 조연은동지, 김수길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김정대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원민동지, 당,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안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인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부, 무관부부들을 비롯한 외국순방객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공포들이 초대되었다.

설맞이공연은 시장 노래와 무용《경애하는 아버지천수님께 영광드려요》, 6중창과 합창《최고야》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주제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이 땅위에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인녕하시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경애하는 천수님께 새해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다.

4중창 《세태를 축하합니다》에서 학생소년들은 당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일당겨 정명하기 위한 전민총동원전에서 기적적승리를 펼쳐온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리고있다.

무대에는 소합창 《김일성대원수님 교감습니다》, 남독창과 반창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어은곡과 손꼽힐만큼 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무용과 노래 《천수님 만길 다녀오셨습니다》, 기능 및 환상무술 《사령관은 우리 분단 설맞

이, 거문부 《령명거리 새집에 설날웃음 호요》, 민속기악과 노래 《웃음년년 내 나라의 자랑이야》,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의 무용이악기 《우리 학교길》, 동화노래극 《꽃동산에서 세운 발전소》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향으로 내세우시며 내해같은 온정을 물없이 베풀어 주시고 세 세대들의 행복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시기 위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해방산기슭에서 첫 맛을 들인 떡도리의 높이 울리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불변불후의 헌신과 로고존 바치신 설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뜨겁게 되새기었다. 햇빛같은 미소로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

피우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천수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학생소년들의 크나큰 영광을 노래한 축복들이 무대 《아버지천수님 고맙습니다》와 너중창 《천수님 밝은 웃음》, 너복창 《따뜻한 민만》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과학관상무용 《코마우주탐험대》, 노래이악기 《아영의 하루》, 무용 《우리 모두 한 마음》, 《소년단원 푸른 숲 펼쳐가요》 등에서 출연자들은 따사로운 해님의 축복이 차넘치는 사회주의학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행복동지들의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기쁨의 노래, 광만년친 송불길이 흐르는 공연무대에 향일아동단의 진정을 뜻깊이 이어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가는 소년혁명가, 소년군위대가 될 학생소년들의 충정의 결의를 담은 소합창 《거리라 맥두 신으로》, 시와 무용 《소년군위대 앞으로》가

연이여 울렸다.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인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주제조선은 더욱 튼실명망한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총장 합창 《김정은천수님 위하여 항상준비》, 세우무용과 합창 《엄마나 맛집가 우리의 새해》로 끝났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천수님의 품속에서 지극체를 갖춘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 딸로 씩씩하게 준비해나가는 세 세대들의 밝은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 공연은 관중들의 질찬을 받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마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질정관철을 위한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만드시 일대세를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승리의 축포성이 높이높이 울려가요 /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 푸른 꿈 안고서 가는 우리 우리 학교길



## 힘차게 내짚은 비약의 첫걸음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새해벽두부터 대비약, 대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아오르고있다. 전후 천리마대교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동원을 벌여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진적국력을 새로운 말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천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의 잠도라가 좋고 일본세도 새롭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단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드높이 뜻깊은 올해에 건설의 대인영거를 더욱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려는 련합기업소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련합기업소의 중요생산공정 그 어디에서나 당의 전두적호소에 대비약의 불길로 화답하려는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비상한 혁명적의지를 느낀 수 있다. 뜻깊은 올해에 련합기업소적으론 첫번째로 시작부터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담보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지난해말 기본생산단위들과 보장부문을 포함한 모든 단위들에서 원료보장 및 조성, 분배체계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의 수리정비에 힘을 넣은 결과 세멘트생산의 승진은 전에 없이 높다.

모든 일꾼들이 중요생산공정들을 하나씩 맡고나가 생산자대중과 조율을 같이하면서 전문직과 지휘부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당, 련합기업소들이 중요전두

## 현지 보도 용해장이 끓는다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에서

여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이다. 새해전진군에 오든 강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분출인양 수천수만의 불보라를 날리며 쇠물이 끓어오른다. 초고전력전기기로의 튼튼한 소리로, 불꽃을 휘젓고 다니는 천정기둥기, 온 작업장을 붉게 물들이며 흥남리는 불꽃들, 쇠물이 끓는 보일러에서 불노름을 피워올리는 용해공들의 열띤 모습... 이 벽천 승집을 온몸으로 느끼며 현지에서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전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형성-김정열로동계급은 주제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앞마라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먼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봉화를 주저물고나아가야 한다.》

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불꽃대가 되려는 용해공들의 역전의 의미인양 그들의 구리빛열과 칼다마에 주홍색의 쇠물빛이 어딘다. 조작용이 조작단속을 거침없이 누르자 자동제어된 여러가지 부원로들이 콘메아를 타고 순식간에 초고전력전기기에 정립된다. 이어 쇠물빛을 주시하던 작업반장이 조종실로부터 엄지손가락을 쳐보인다. 정상상태를 지키려는 푸른 신호등들이 커튼 가운데 모든 작업이 치차처럼 맞춘다. 출강시간이 가까운데 용해장은 더욱 불린다. 열기를 내뿜는 쇠물남비가 허공중에 매달려 출강구멍으로 다가가는다. 매를 같이하여 용해공들이 날랜 승리로 마지막출마를 걸어

본사기자 지원 협

본사기자 윤 금 한



